

“문화수도 예술인 일자리 드립니다”

95명에 고정 월급...3년간 25억원 지원 벽화그리기·거리공연 등 프로젝트 수행

‘광주 문화를 이끌어갈 95명의 일꾼을 찾습니다.’

29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모난돌 카페에서 진행된 ‘열린 일자리 한마당 채용 박람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행사가 기존의 채용 박람회와 다른 점은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공연엔지니어 등 ‘문화 인력’들에게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

특히 최근 예술인들의 취약한 창작 여건에 대한 걱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행돼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단비같은 행사였다.

지역 문화 NGO인 ‘모난돌’(회장 한길우)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미술가, 공예가, 국악인 등 예술인들부터 문화 관련 일을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 60대 퇴직공무원, 중국 교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 지금까지 이 사업이 간병인 교육, 도시락 사업 등에 국한된 데서 벗어나 문화예술인들도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인정, 문호를 개방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모난돌’을 중심으로 광주시 등 행정기관, 세정아울렛 등 기업체가 노동부에 가장 ‘빛고을 공공문화예술사업’을 신청, 전국 최초로 사업권을 따내 3년간 25억원을 지원받아 가능하게 됐다.

채용 인원은 기획실(홍보마케팅, 문화교육), 예술국(미술·공예·공연), 사무국 등 3개 분야 95명. 이날 면접에는 약 200여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주최측은 50여명을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후 모집한다.

합격자들에게는 매달 기본급 77만원과 4대 보험가입, 복지후생제도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

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된다.

이들은 벽화 그리기 등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와 인디뮤지 페스티벌 등의 공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양성, 축제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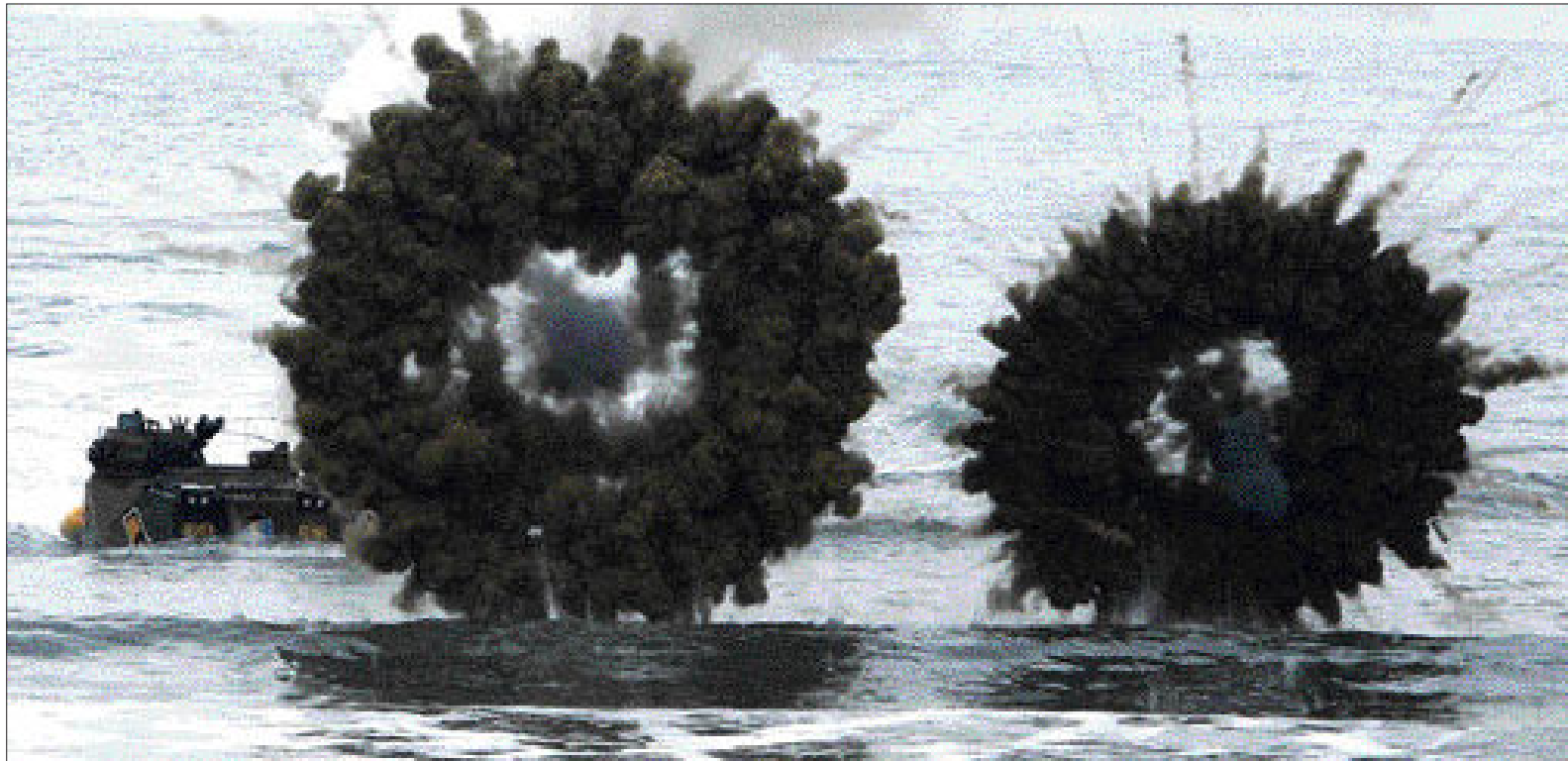
‘모난돌’은 4월중 구체적인 프로그램 발표하며 첫 월급날인 5월 12일에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준다는 의미로 ‘축제’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영자(여·47)씨는 “미술을 전공한 후 지금까지 공공 벽화 작업 등에 참여했는데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가 주홍(여·40)씨는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 행사를 지양하고 신선한 발상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는 느낌을 받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난돌’의 한길우(35) 회장은 “개별 활동도 중요하지만 95명의 예술 전문 기획자를 양성, 좀더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35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미 연합 전시증원훈련

한미 연합 전시증원훈련(RSOI)에 참가중인 한국 해병대의 LVT-7 상륙정이 29일 태안반도의 한 해변에 상륙을 시도하면서 육상 사격에 대비한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서남권특별법 별도 입법키로

정부, 남·동해안 특별법과 분리...전남 발전 취지 살려

‘남·동해안 연안발전 특별법’과 함께 정부 입법으로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었던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분리 심의된다.

이에 따라 남해안 특별법에 동해안 특별법까지 가세한 병합 심의로 누더기 법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서남권 특별법은 낙후된 전남권 발전을 추진한다는 본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9일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당초 ‘서남권 특별법’은 정부 입법을

통해 오는 4월 임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상의 문제 등으로 국회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2월 임시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에서는 서남권 특별법과 남·동해안 연안특별법을 병합 심의키로 했으나 두 법의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에서 투-트랙(Two-Track)으로 분리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을 위해서는 부처 논의와 입법 예고,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과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남권 특별법은 정부 예산 투입과 투자 촉진이 핵심인 반면 남·동해안 연안특별법은 규제 완화가 주

요 내용이므로 분리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병합심리로 인해 낙후된 전남 발전을 견인하려는 서남권 특별법의 취지 퇴색을 우려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남·동해안 특별법과의 병합 심리로 본래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될 것으로 우려됐던 서남권 특별법은 낙후된 전남권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남권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일방적인 개인 입법보다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남권 특별법의 4월 임시 국회 입법과 통과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경우에 따라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이제 와서 입법 주체와 심의 방법의 변경을 요구, 타지역 출신 건교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남권 특별법 내용과 관련 정찬용 서남해안 포럼 대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서남권 특별법은 정부의 예산 투자가 양당겨지고 민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더욱 특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FTA타결 전제 빅딜 돌입

오늘 최종 담판...쌀·쇠고기·오렌지 최종 ‘패키지’ 올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단의 순간을 맞았다.

양국은 29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전면에 나서 일괄 타결을 전제로 농업과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주고받기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4면〉

미국이 공식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은 쌀, 관세와 검역 문제가 뒤얽혀 있는 쇠고기,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있는 오렌지 등 3개 품목은 장관급에 올릴 품목으로 이미 확정됐으며, 돼지고기 등 2~3개 품목은 아직 유동적이다.

민감 농산물과 함께 패키지에 들어갈 핵심 쟁점으로는 자동차,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반 및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 10여개다. /연합뉴스

제52회 호남예술제
4월 3일~12일 접수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222-8111

우당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조유하는 순간 세상의 부러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부러움의 순간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 담양다이너스티CC 직원 및 정기보조원 모집 ◆

● 모집 분야	● 모집 인원
1. 클럽하우스 관리직원 10명	2. 그린케어 관리직원 10명
3. 클럽하우스 청소직원 10명	4. 그린케어 청소직원 10명
5. 클럽하우스 경비직원 10명	6. 그린케어 경비직원 10명
7. 클럽하우스 조리직원 10명	8. 그린케어 조리직원 10명
9. 클럽하우스 운전직원 10명	10. 그린케어 운전직원 10명

◆ 회원 모집 ◆

● 회원 모집	● 회원 모집
1. 일반회원 100명	2. 후원회원 100명
3. 명예회원 100명	4. 특별회원 100명
5. 평생회원 100명	6. 특별회원 100명